

“믿고 참고 기다려라”

약 5:1-11

1963년 11월 23일 텍사스 달라스 한 복판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리던 뉴프런티어의 상징 존 F. 케네디가 쓰러졌습니다. 그 날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잠시 후 예정되어 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은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 즉 미국도 지금 국력을 신장할 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때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케네디가 쓰러진 11월 23일 이 뉴스를 접한 빌리 그래함 목사는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자기에게 좀더 이야기 할 수 없겠느냐고 간청하던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기를 구실로 케네디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일생 최대의 후회’라고 빌리 그래함은 그의 전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 할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두 가지 중점사항은 구원과 성화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으로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화, 즉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Holiness/Sanctification)는 ‘구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어 점진적으로 변화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시간이 제법 지난 상태였습니다. 몇 십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의 정신자세는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인 긴장을 찾아 볼 수 가 없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잘못된 목표에 대한 경고(약 5:1-3)

1 절에 나오는 ‘부한 자’란 모든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도 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거부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책망의 대상은 오직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을 목적으로 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부만을 목적으로 산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모두 썩고, 썯이 슬고, 녹이 슬어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모으고 이루었지만 막상 자기 인생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절의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이 일분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은 돈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은혜의 부자가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믿음의 점검

세상적인 삶의 긴장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피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영성이 빠져 나가버려 영감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8 절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긴장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를 부패와 타락에서 지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킴으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긴장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나의 신앙에 긴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요 잠자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평안한 삶보다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진리로 인하여 박해 받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여 실직하거나 고통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신음하는 소리는 더 더욱 듣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 권면하는 것이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3. 인내하며, 이겨내라!(약 5:7-8)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되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았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추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과 같습니다.

특히 성경은 '욥'처럼 인내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많은 것을 뿌렸지만 완전히 파산했고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붙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욥의 불행은 철저한 불행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11 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인간의 시기와 다릅니다. 내 시계 잘못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안 지키냐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 장 9 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를 영접한 이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후)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3. 정말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있습니까? 그 긴장감의 여러분의 신앙에 구체적 인 어떠한 변화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4. 각자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상황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75 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 세에 받았습니다. 25 년 걸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 장 6 절과 9 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한 다음 20 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약속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무려 40 년이 걸렸습니다.

야고보서 5 장 10 절로 11 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서 뛰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 장 3 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무궁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